

광주기독병원은 호남 만세운동 본부였다

〈옛 제증원〉

‘조선독립광주신문’ 발행 배포 광주·전남 만세 시위 참여 호소 월슨 원장 제자 8명 적극 가담 독립운동 체포돼 옥고 치러 주도한 황상호씨만 유공자 제외 25일부터 광주기독병원 사진전

‘광주지역 만세운동을 이끈 월슨의 제자 8인을 아시나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기독병원(옛 제증원)이 호남만세운동의 본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제증원 2대 원장을 맡고 있던 로버트 월슨(한국명 우엘슨)의 제자 8명이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며 독립에 대한 열기가 전남지역으로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한 기록들이 대거 확인된 것이다.

10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1908년 취임한 월슨 원장은 1911년 현대식 병원 건물을 신축하며 밀려드는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10~20대 한국인들에게 의학교육을 시켜 의료인으로 양성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제자의 이름은 최흥중·최영숙·최경동·황상호·중주·마태·창동·박집사 등 8명이다.

월슨 원장은 제자들에게 의학 지식을 비롯한 기독교 사상을 전달하며 평등주의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흥중 등은 서울의 3·1만세운동 이전부터 독립정신을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1919년 3월 10일 일어났던 광주만세운동이 일제 경찰의 대규모 탄압으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월슨 원장의 제자들이 두팔을 걷어 올렸다.

병원 회계역 황상호(당시 29세)는 남자 간호사 홍덕주(29), 제약생 장호주(24)와 함께 병원 등사실에서 ‘조선독립광주신문’ 300부를 비밀리에 발행하고 배포해 분위기를 이어갔다. 신문사장 명의를 황씨의 별명인 ‘황송우’로 했다.

‘조선독립신문’에 영감을 받은 이 신문은 4호까지 발행했다. 1919년 3월 11일로 발행된 제1호는 전날 있었던 광주만세운동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전국만세시위 소식, 고종 독살설, 미국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 주의 등 국내외 정세에 대한 소식을 알리며 만세 시위 참여를 호소했다.

신문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포·영암 등지로 전해지며 만세 시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결국 일제에 의해 불잡혀 황상호는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당시 병원 서기였던 최경동(18), 간호사 김금서(28)·김희순(여·26)·김안순(여·20) 등도 시위참석으로 징역



광주기독병원(옛 제증원) 로버트 월슨 원장(첫줄 가운데)과 당시 광주나병원 책임자인 최흥중(맨 오른쪽) 등 병원직원들의 기념촬영 사진. 191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월에서 8월 형을 받았다.

앞서 최흥중은 광주 만세시위를 의논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파고다공원 만세시위에 참여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제증원 직원 8명이 독립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것이다.

이는 당시 제증원 직원 규모가 2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선교사를 제외한 한국인 직원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슨의 제자들은 옥고를 치른 뒤 제증원으로 돌아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료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항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해왔고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수형자 대부분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지만, 가장 많은 형을 선고 받은 황상호만 제외돼 좌익으로 분류됐거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았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독병원은 지난달 말 자체적으로 제증원 출신 독립 유공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후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최흥중과 동생 최영숙(초대 전남지사)의 관계 외에도 최경동과 창동이 형제였고 최흥중이 최경동의 백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경동은 1942년 여수 애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원생들에게 항일사상을 가르치다 또다시 체포돼 지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흥우 광주기독병원장은 “제증원 직원들이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근 수피아여고·송일학교 등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 일본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공식적인



최흥우 광주기독병원장이 제증역사관에서 직원들의 항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선교사들의 간접적 후援도 한몫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독병원 로비 제증역사관 입구에서 ‘3·1운동과 광주 제증원’이라는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주기독병원 사

건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조선독립광주신문 사본, 월슨 원장과 제자들 사진, 옛 제증원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백범기념관,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광주백범기념관과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이 지킨 역사, 민이 지킬 평화’를 주제로 ‘100년 학교’와 ‘100년 마당’을 개최한다.

10일 백범기념관에 따르면 100년 학교는 광주백범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과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100년 마당’은 백범기념관이 지리한 동구학동 역사공원 일대에서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오후 3시 개최한다. ‘나라를 지켜라 태극편이 만들기’ ‘오일 등불 밝히기’ ‘통일을 꿈꾸는 평화 POP’ ‘대한독립만세 합성외치기 대회 등’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백범기념관은 백범 김구 선생의 호응으로 조성된 학동 백화마을의 유래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건립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 정부 지원 악용해 직원 사회보험료 횡령

11개사 대표 입건·2곳 수사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악용해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퇴사 후 연금수령액이 하향 조정되거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제때 지급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국민연금법위반 등)로 11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추가 2개 업체의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직원들의 1억원 이상 사회보험료를 9개월 이상 체납한 업체의 대표다. 업체들은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조

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악용했다.

13개 업체에선 1691명 소속 근로자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26억7000만원이나 원천징수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 건강보험료는 보수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해 매월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횡령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자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고길호 전 신안군수 법정구속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73) 전 신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성준)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7월 사이 지인이나 업자들로부터 토지 이용권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를 담보삼아 추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추근 명의로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렸다. 군수에 당선된 후에는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아 빚을 갚았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흠친 차에 여학생 강제로 태워 7시간 감금한 중학생 5명 검거

흠친 차량에 동갑내기 여학생을 강제로 태워 위험한 질주를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절도 및 공동금 등 혐의로 중학생 김모(14)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주택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A(14)양을 강제로 차에 태워 7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다.

김군은 전남 오후 11시 30분께 광양시 한 길거리에서 열쇠가 쏙힌 채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광주로 달아났다.

김군은 “이모 차를 가지고 나왔으니 함께 놀러 다하자”며 동급생 친구 4명을 태운 뒤 A양을 만나러 갔으나, A양이 거절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치킨 소스 왜 돈 받아” 가게 번기에 이물질 마구 집어넣어



○치킨가게에서 양념 소스를 공짜로 주지 않고 1000원을 받으려 한 데 화가난 20대가 번기에 다량의 이물질(물고기 뼈 등)을 넣어 마악하게 하려한 혐의(재물손괴 미수)로 경찰에 입건.

○10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B(여·48)씨가 운영하는 치킨집 화장실 번기에 비누갑과 화장지 등을 마구 집

어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치킨 소스 값을 따로 받으려 하자 양심을 품고 범행을 하려던 중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경찰에서 “소스 값으로 1000원을 받으려 해 화장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임야 단독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이전 세라코이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받았으나 용역계약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한 범의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나 용역계약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사업주에게 영업대리인
 - 태양광 사업주에게 영업대리인
 - 태양광 사업주에게 영업대리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 업무	자격 요건	근무 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성
	신사업개발	사업개발 분석 가능, 경력 10년 이상	
세 라 코	수입관리	영업	나 주
	세라믹 (첨단소재)	영업	

※ 업무명: 담당 010-330-732, 연락처: 010-6834-7400,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택을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반도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8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주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송촌동 운전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평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참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천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물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0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상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2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물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면은 1213㎡ 감정 6억4천 대체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문의 0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 면 적 12,510.5㎡ (3,785평)
 - 매 매 가 230억원
 -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010-3111-5087